



불씨,
두번이나 살렸어

통쾌한 어퍼컷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왼쪽 두 번째)가 12일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1-3으로 뒤진 8회말 1사 2루에서 안타를 때린 뒤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7회 적시타·동점

10회 3루타·동점

해적 두번 구한 강정호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한국인 내야수 강정호(28)가 2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다. 강정호가 두 차례 동점 득점을 올린 덕에 피츠버그는 승부를 연장 14회까지 끌고 갔고, 앤드루 맥커전의 끝내기 홈런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강정호는 12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5번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1-3으로 뒤진 8회말 1사 2루에서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우완 불펜 세스 메이니스의 시속 153km짜리 직구를 밀어쳐 우전 안타를 쳤다. 2루주자 앤드루 맥커전은 홈을 밟았고, 강정호는 홈 송구를 택한 세인트루이스 야수진이 실책을 범하자 2루까지 도달했다. 후속타자 페드로 알바레스가 중전 적시타로 강정호를 홈으로 불러들여 피츠버그는 3-3 동점을 만들었다.

3-4로 뒤진 10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한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의 시속 157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외야 펜스를 때리는 3루타를 쳤다. 메이저리그 입성 후 개인 두 번째 3루타다. 강정호는 이번에도 상대 야수진의 중계 플레이가 흔들리는 틈을 타, 3루까지 파고들었다.

크리스 스튜어트의 우전안타 때 강정호가 득점을 올렸고 피츠버그는 다시 동점을 이뤘다. 강정호는 12회말에는 헛스윙 삼진에 그쳤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64에서 0.267로 올랐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경기에서 피츠버그는 4-5로 뒤진 연장 14회말 무사 1루에서 타진 '선장' 맥커전의 끝내기 중월 투런포로 6-5 역전승을 거뒀다.

피츠버그는 2회초 클린트 허들 감독과 포수 프란시스코 세르벨리가 동반 퇴장을 당해 힘겹게 경기를 끌고 갔다. /연합뉴스

광주 FC, 처음으로 울산 잡았다

K리그 클래식 22R 김호남 결승골...1-0 승

7경기만에 승점 3점...울산에 6점 앞선 9위

버티고 버틴 광주 FC가 울산 현대를 상대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해결사' 김호남이 2011년 창단 후 첫 울산전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광주 FC가 지난 1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울산과의 원정경기에서 김호남의 선제골을 지키며 1-0 승리를 장식했다. 창단 후 이어져 온 1무5패의 열세를 뒤로한 울산전 첫 승. 이번 승리로 광주는 6경기 무승(4무2패)의 부진을 털어내면서 값진 승점 3점을 더했다. 순위는 그대로 9위를 유지했지만 10위 울산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였다.

공격수 김호남과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이 경고누적에서 돌아와 공수에 촉을 이뤘다. 광주가 전반전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여가며 울산을 압박했다. 실수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선제골은 광주의 몫이었다. 전반 17분 김호남이 오른발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그대로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부상 복귀 이후 첫 골이자 시즌 3호골이었다.

울산은 장신 공격수 김신욱을 중심으로 측면 공격을 전개하면서 제공권 장악에 나섰다. 그러나 앞선 만남에서 김신욱을 막지 못하면서 패배의 아픔을 기록했던 광주는 필사적으로 김신욱 저지에 나섰다.

광주의 수비에 막힌 울산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양동현을 투입하며 전술에 변화를 줬다.

김신욱(196cm)과 양동현(186cm)을 최전방에 배치해 신장이 작은 광주의 수비진을 압도하려는 전략이었다. 이에 맞서 광주의 남기일 감독은 후반 6분 공격수 주현우의 자리에 186cm의 오도현을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승리를 지키기 위해 '점유를 축구' 대신 선수비 후역습의 '실리 축구'로 전환했다. 광주 공격수들도 수비에 적극적

으로 가담하며 울산의 측면을 봉쇄했다. 후반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체력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광주 수비진은 유기적인 위치 선정과 협력 플레이로 울산의 발을 묶었다.

후반 추가시간까지 울산의 매서운 공격이 진행됐지만 광주는 김호남의 결승골을 지키면서 7경기 만에 승리를 누렸다.

남기일 감독은 "힘든 경기였지만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점 관리를 잘했다. 후반전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득점 이후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며 "울산이 후반전 양동현을 투입해 통볼위주 전략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 수비에 집중했다.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수비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리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원정 9연전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분명했지만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고, 서로 힘이 됐다.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기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트레이드로 골키퍼 최봉진 영입

광주 FC가 트레이드를 통해 골키퍼 유망주 최봉진을 영입했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지난 11일 경남의 골키퍼 최봉진과 신인 수비수 류범희를 바꾸는 1대1 트레이드를 감행했다.

최봉진은 1992년생의 젊은 골키퍼로 193cm, 83kg의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이 뛰어나며 민첩성이 좋다는 평가다. 양산중-부경고를 거친 최봉진은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17세 월드컵에 참가하는 등 학창 시절 대표팀 경력을 지내기도 했다. 중앙대에서는 '거미손'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대학 내 골키퍼 중 손에 꼽을 정도의 기량을 보인다

최봉진은 올 시즌 자유계약약을 통해 경남에 입단했다. 아직 프로데뷔전은 치르지 못했다.

광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빠르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 6일 브라질 공격수 까시아노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했고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뒷분도 강화했다.

권정혁을 비롯한 제정현, 주정우로 골키퍼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는 최봉진의 합류로 최후방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恨기주, 3년만에 1군 복귀

팔꿈치·손가락 이어 어깨 수술...재활 끝내고 출전 준비 150km대 강속구 없지만 제구 초점...주중 LG전 필 듯

KIA의 '아픈 손가락' 한기주의 유쾌한 헛결음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한기주가 힘들었던 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12일 1군으로 승격됐다. 팔꿈치와 두 차례의 손가락 수술에 이어 어깨 수술까지 더해지면서 길고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한기주였다. 최근 1군 등판 기록은 2012년 8월16일 LG와의 잠실경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손가락 수술 이후 재기를 노렸지만 이번에는 어깨에 이상 신호가 오면서 다시 긴 재활의 터널로 향했다.

기약 없던 시간이었지만 한기주가 돌아왔다. 재활을 끝내고 서서히 강도를 높

여왔던 한기주는 올 시즌 2군 23경기에서 6.00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3패2세이브1홀드를 기록했다. 3월 SK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3년 만에 첫 실전 등판에 나서 142km를 마크했던 그는 최고 구속 146km까지 기록했다. 한기주를 대표하던 150km를 가볍게 넘던 강속구는 없지만 제구와 변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1군 무대를 기다렸다.

11일 밤 그는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1군 합류 통보였다. 12일 오전 kt와 택시를 타고 부지런히 인천으로 올라간 한기주는 이날 예정됐던 SK와의 원정경기가 우선으로 취소되면서 짐을 풀기

도 전에 다시 구단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다. 헛결음을 한 셈이지만 기분은 좋다.

한기주는 "너무 오래 경기를 뛰지 못해서 문학 경기장도 어색할 정도다. 당분간 여러 가지 적응하느라 바쁠 것 같다"며 "어깨에 통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좋다. 준비를 많이 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공을 던져보고 싶었다. 아프지 않고 팀을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고 1군 합류 소감을 밝혔다.

비로 미뤄진 한기주의 1군 복귀전은 오는 14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지는 LG와의 주중 3연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세리나 슬램'

웬블던 우승...여자테니스 메이저 4연패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가 '세리나 슬램'을 달성했다.

윌리엄스는 11일(현지시각) 영국 웬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웬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2675만 파운드) 여자 단식 결승에서 가르비네 무구루사(20위·스페인)를 2-0(6-4, 6-4)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US오픈부터 올해 호주오픈, 프랑스오픈을 연달아 제패한 윌리엄스는 최근 열린 메이저 대회 4개를 휩쓸면서 '세리나 슬램'을 달성했다.

'세리나 슬램'은 한 해에 메이저 대회 4개를 석권하는 '그랜드 슬램'이라는 단어에 착안해 만든 신조어다. 한 해에 메이

저 대회 4개를 모두 우승한 것은 아니지만, 세리나가 2년에 걸쳐 네 차례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우승했다는 의미다.

윌리엄스는 2002년 프랑스오픈부터 2003년 호주오픈까지도 메이저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또 윌리엄스가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인 US오픈까지 우승하면 1988년 슈테피 그라프(독일) 이후 27년 만에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2012년 이후 3년 만에 웬블던 정상에 복귀한 윌리엄스는 웬블던에서 통산 6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는 21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88만 파운드(약 32억8000만원)다. /연합뉴스